



Analyst
김도하
dohakim@sk.com
02-3773-8876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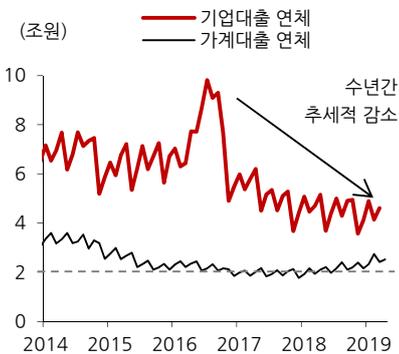
4월 연체율: 역사적으로 낮은 연체율, 낮아진 건전성 우려

국내은행의 4월 연체율은 경상적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하반기에는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대출금리가 최근 하락 전환하면서 건전성 우려도 낮아짐. 자영업자 및 가계 대출 연체지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나, 우려를 제기하기엔 이르다고 판단. 추이 감안시 은행업종 대손지표는 올해도 예년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국내은행 4월 연체율 0.49% (-10bp YoY), 경상적으로는 flat 추정

국내은행의 4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49%로 10bp YoY 하락했으나, 2018년 4월 발생했던 조선사 한 곳의 exposure 를 제외한 경상 연체율은 0.44%로 추산돼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 대기업 연체율은 0.73%로 103bp YoY 하락했으나 전술한 조선사 한 곳 영향 제외 시 0.3% 미만이며 10bp YoY 내외 하락한 것으로 추산됨. 중소기업 연체율은 0.62% (-2bp YoY)로 하락세 지속했지만, 2018년 9월부터 공표된 자영업자 연체율은 0.39% (+3bp YoY)로 최소 6개월 연속 상승 중임. 가계 연체율은 주택담보 0.22% (+3bp YoY), 신용 등 일반대출 0.50% (+4bp YoY)로, 2018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상승을 이어감 (그림 1~6 참조)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본문 그림 9)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18년 4월 이후는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연체채권 잔액 YoY 증가율 (추정) (본문 그림 10)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18년 4월 이후는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기업 연체율은 여전히 하락세, 총 연체율은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 전망

2016년 및 2018년 발생한 조선사 세 곳의 연체를 제외하면, 은행 연체율은 6년 연속 YoY 하락한 후 2019년 들어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 하반기에는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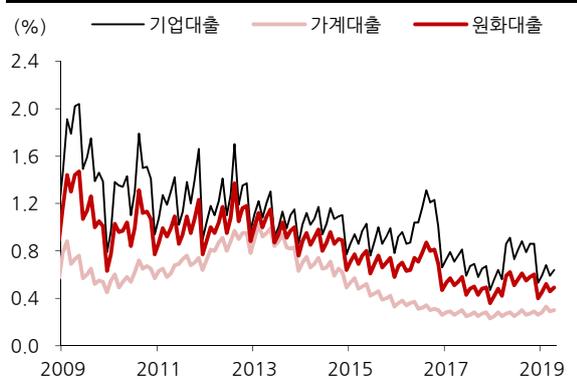
- 기업: 4월 말 기업 연체채권 잔액은 성동조선 제외 시 4.6조원으로 추산. 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연체 규모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만, YoY 감소율은 축소되는 중 (그림 10 참조). 자영업자의 경우 4월 말 연체 잔액이 17% YoY 증가를 보이며 연체율 상승 중임

- 가계: 4월 말 가계 연체채권 잔액은 2.5조원으로 19% YoY 증가 (그림 9~10 참조, 2018년 잔액 평균 2.1조원). 반면 연체율 측면에서는 3~5bp의 YoY 상승률을 보여 상승 속도는 완만하며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5 참조)

역사적으로 낮은 연체율, 낮아진 건전성 우려

국내은행 연체율은 2013년 하반기부터 추세적 하락을 이어옴. 기업 연체 '감소율'은 축소됐지만 가계 연체 '증가율'도 축소되면서 총 연체채권 증가율은 4% YoY로 대출증가율(6%)을 하회하는 완만한 수준을 지속.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잔액 대출금리가 최근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건전성 우려도 낮아짐. 자영업자 및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지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나, 우려를 제기하기엔 이르다고 판단. 총 연체율의 하락세 지속을 감안하면 은행업종 대손지표는 2019년에도 예년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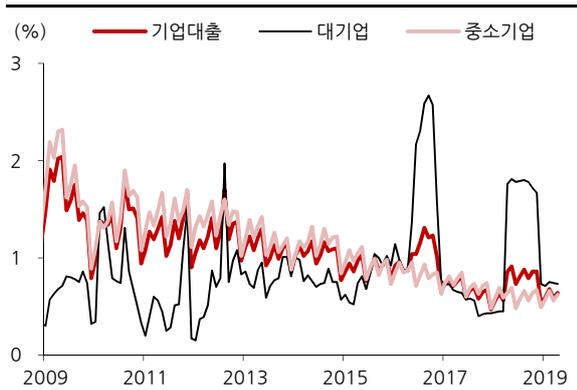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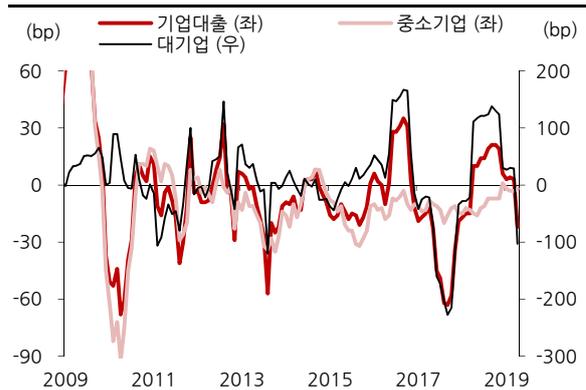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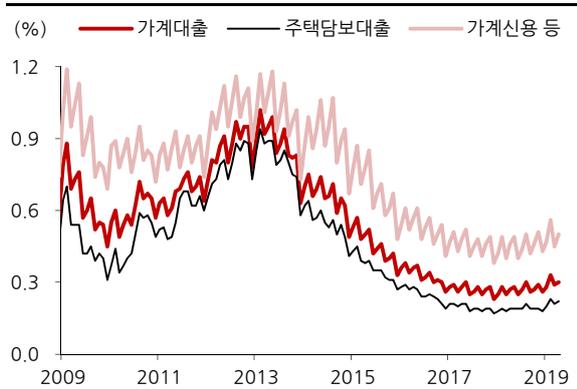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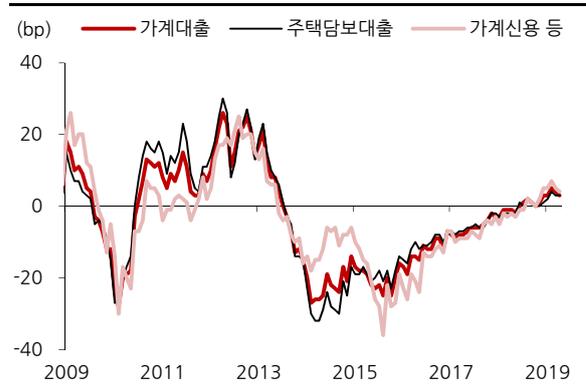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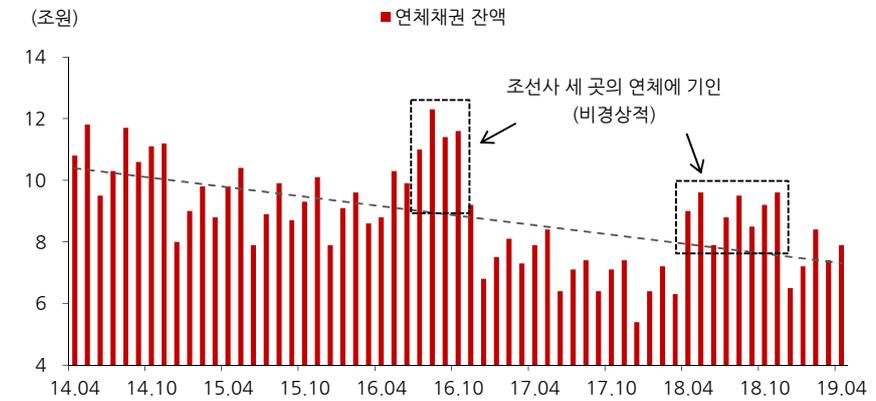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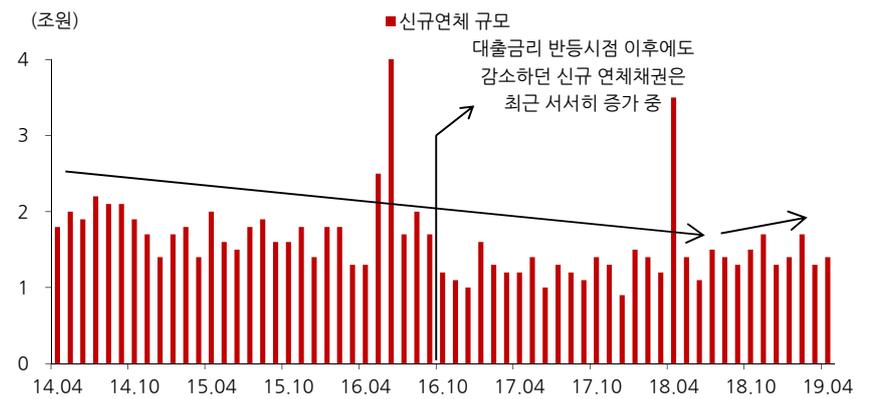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체 규모는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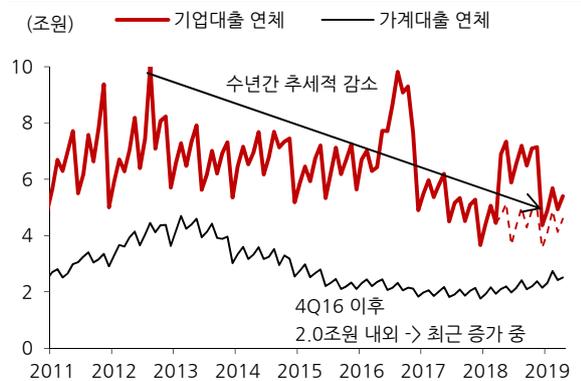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그림 8. 국내은행 월 중 신규연체 규모: 최근 들어 서서히 증가 중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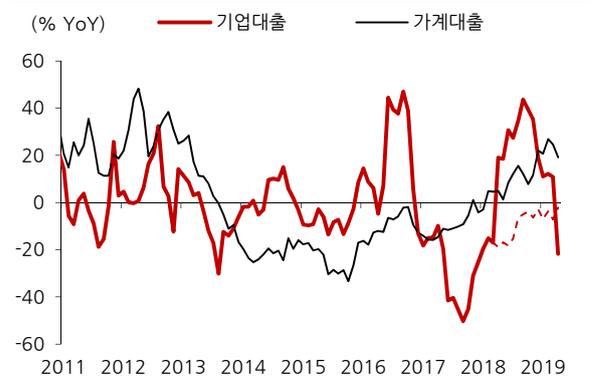
그림 9.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점선은 '18년 4월 발생한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그림 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점선은 '18년 4월 발생한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김도하)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9년 6월 20일 기준)

매수	91.11%	중립	8.89%	매도	0%
----	--------	----	-------	----	----